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 VIP REPORT

2기 벤처시대의 도래와 활성화 과제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9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2기 벤처시대의 도래와 활성화 과제

Executive Summary ..... i

1. 논의 배경 ..... 1

2. 2기 벤처시대의 도래와 한계점 ..... 4

3. 벤처 활성화 과제 ..... 10

■ HRI 경제 지표 ..... 13

### ■ 논의 배경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녹색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벤처업계의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과거와 같은 벤처 버블의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일시적인 벤처 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벤처업계가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 ■ 2기 벤처시대의 도래와 한계점

(현황) 국내 벤처기업은 과거 벤처 버블 붕괴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벤처 확인 기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양적 측면에서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말 현재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업체는 18,893개로 벤처 버블기의 2001년 11,392개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벤처 확인기업 유형을 보면, 기술평가보증기업이 전체의 83.5%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5.7%, 정보처리S/W 13.4%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벤처기업이 IT기반의 기존 제조업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벤처캐피탈의 현황을 살펴보면, **창투사와 조합 수도 최근 조금씩 늘면서 신규 투자가 살아나고 있으며 투자 잔액 규모도 2000년대 초반의 벤처붐 시기의 실적을 회복**하고 있다. 한편 신규 결성 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정부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출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한계점) 우선 벤처 생태계에서 자금조달 및 회수를 위한 중요한 창구인 **코스닥과 프리보드 시장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말 현재 코스닥과 프리보드에 등록된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1.7%에 불과하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자금조달 시장 진입에 따른 효과 미흡 등으로 인해 벤처생태계가 여전히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벤처 확인제도의 정책 효과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기술력 평가에만 중점을 두고 사업성은 결여된 이른바 무늬만 벤처인 벤처기업을 양산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녹색 벤처로 분류되는 기업은 여전히 낮은 비중**에 머물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벤처의 약 7.7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부문은 벤처 비중이 낮은 형편이다.

### ■ 벤처 활성화 과제

녹색기술 관련 벤처 창업을 유도하고 벤처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벤처기업의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분야별, 기술 수준별로 우량 벤처를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녹색 벤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녹색 기술력 배양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녹색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예상 수요에 맞춰 체계적인 인재 육성 등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한다. **셋째**, 벤처 인증제도의 보완과 장외 시장인 프리보드 시장의 거래 비용 경감 등 벤처 생태계의 자생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녹색산업 분야는 글로벌 규제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정보 네트워크 및 경영 자문 등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과의 상생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 1. 논의 배경

### ○ 녹색 벤처 육성이 주요 정책 화두로 대두

-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대안의 일환으로서 녹색 벤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최근 저탄소 녹색 성장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첨단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녹색 경쟁력 확보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됨
  - 에너지, 바이오 등 핵심 녹색기술 분야는 아직 기술적 성숙도가 낮고 글로벌 스탠더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벤처기업의 이점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임
- 최근 정부는 녹색 기술과 IT 융합을 통한 신산업 벤처 육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제2기 벤처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함
  - 녹색 벤처 육성을 위해 2012년까지 총 3조 5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기로 함
  - 2000년대 초반의 벤처 붐이 정보기술 분야 위주였다면, 이번엔 녹색기술 등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임

#### < 제2기 벤처기업 육성 대책의 주요 내용 >

1. 벤처 동력 확충	① 녹색 등 신산업 벤처 육성
	①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벤처 육성 ② IT융합 등 신산업 벤처 육성
2. 투자 위주 금융 공급	② 벤처 투자 활성화
	③ 벤처투자 확대 ④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3. 정책 효과 극대화	③ 청년 기업가 정신 확산
	⑤ 청년의 잠재된 열정 촉발
	⑥ 체계적 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
	⑦ 청년기업인 기(氣) 살리기 ⑧ 재도전 프로그램 운영
4. 벤처기업의 질적 성장	④ 기술 창업 저변 확대
	⑨ 대기업의 사내 및 분사창업 촉진
	⑩ 대학·연구기관 기술창업 요람화 ⑪ 우수 인력의 유입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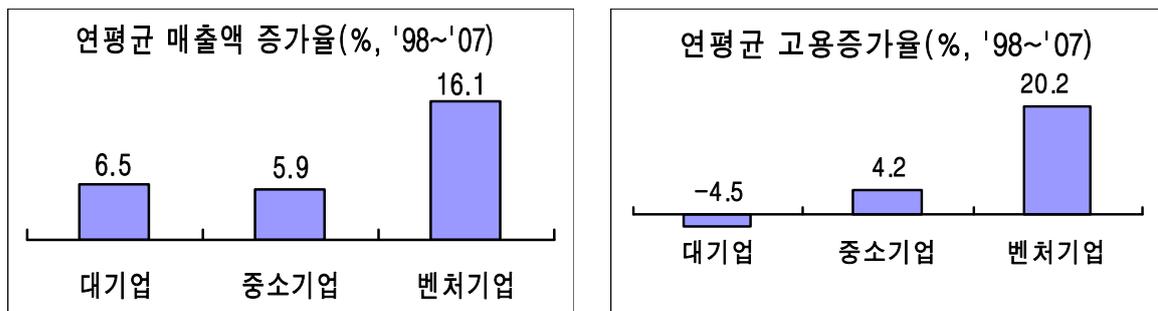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2009.12)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

○ 벤처 버블을 경계하면서 벤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과제

- 과거 벤처 버블 붕괴로 인한 부작용도 있었으나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90년대 말 국내 벤처 열풍과 붕괴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도 있었지만 벤처기업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성장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었음
-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IT 벤처 육성 정책을 통해 벤처 붐이 일어나면서 IT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음

< 벤처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 증가율 추이 >



자료 : 중소기업청(2009.12),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

- 지금까지 벤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과 같은 본격적인 벤처 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벤처 버블 붕괴 이후 벤처기업의 건전화 방안, 창업 절차 간소화, 기술 창업 활성화 등 벤처의 질적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기업인의 벤처 도전이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의 경기 침체 영향도 있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사회적 관심도 낮은 실정임

- 이에 벤처업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과거 벤처 버블기의 교훈을 되새겨 봄으로써, 특히 녹색 벤처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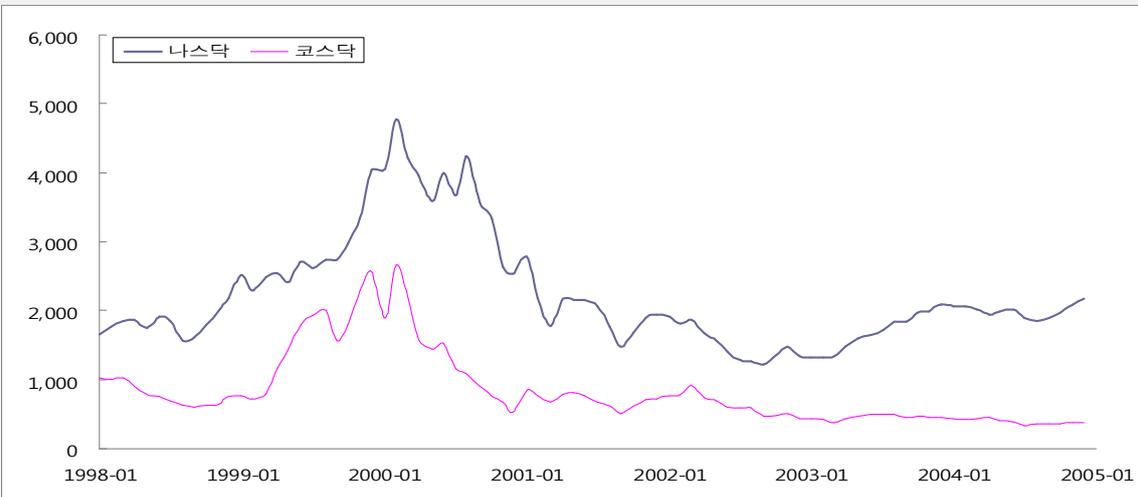
- 과거의 벤처 버블 경험을 살려 건전한 벤처 생태계를 회복하고 특히 녹색 벤처의 창업 활성화와 자생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살펴봄

**[참고] 국내 IT 버블의 형성과 붕괴**

○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벤처 버블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

- 전 세계적인 닷컴 버블의 형성과 붕괴에 따른 외부적 영향이 계기
  - 국내에서 벤처 버블이 발생한 1999~2000년 동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이른바 ‘닷컴 버블’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
  - 이 시기의 미국의 나스닥 주가와 한국의 코스닥 주가 흐름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나스닥과 코스닥 지수 변동 추이 >



자료 : NASDAQ, 한국증권거래소

- 벤처기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수익 모델의 취약성이 버블 형성의 주된 요인
  -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자 및 국민들의 기대는 높는데 비해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었고, 일부의 투기적 행태와 도덕적 해이로 벤처 불신의 원인이 되었음
  - 벤처는 고수익 고위험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과대평가로 인해 이른바 ‘묻지마 투자’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음
- 벤처 생태계의 자생적 기반 확충보다 단기적 과열을 초래한 지원 정책도 일조
  -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과 고용 창출 정책을 추진함
  - 벤처육성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벤처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벤처확인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이 벤처 붐을 조성하는데 일조함
  - 하지만 단기간에 과열된 벤처 붐은 벤처캐피탈의 과당 경쟁을 초래하고 벤처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과 코스닥 시장의 급랭으로 이어짐

## 2. 2기 벤처시대의 도래와 한계점

### ○ 의미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통틀어 광범위하게 지칭함
  -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sup>1)</sup>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기관의 기술력 확인을 받은 기업을 지칭함
  - 기업 특성상 고위험 고성과(High risk high return)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높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이익이 예상되는 기업으로 정의됨
  
- 특히 녹색 벤처는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로서, 정부는 단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50개 품목 117개 기술을 유망 녹색 분야로 지정한 바 있음
  - 전통적 의미의 녹색 기술은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자원 활용에 관한 기술을 지칭함
  - 최근에는 전통적 녹색기술뿐 아니라 IT, BT, NT 등 신기술간 또는 기존 제품·산업간 융합을 지향하는 융합 녹색기술로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녹색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시장 선점 경쟁은 국내 시장의 경쟁이 아닌 글로벌 규모의 경쟁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 117개 중소·벤처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

신재생 에너지 : 46개	에너지 효율 향상 : 44개	친환경 : 27개
태양광 (15), 풍력 (24), 바이오 에너지 (7)	LED (14), 히트램프 (12), 그린 IT (18)	폐기물 에너지화 (14), 폐기물 자원화 (13)

자료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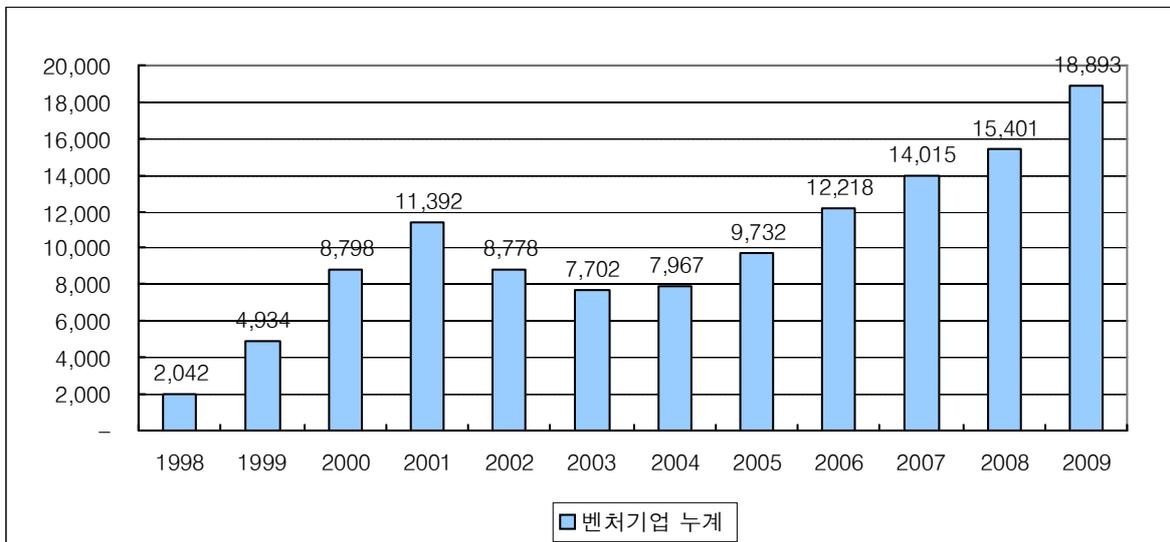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에서는, 벤처기업의 요건으로서 ①기업 자본금 중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금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 ②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대비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 ③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적기관이 보증한 특정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현황

- 2009년 말 현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수는 18,893개로, 2003년 이후 외형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벤처 버블의 붕괴와 더불어 정부의 벤처기업 확인 요건 및 절차 등의 강화에 따라 2001년 11,392개를 정점으로 2003년에는 7,702개로 감소되었음
-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미리 정하고 있고 확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벤처 정책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벤처기업의 연도별 현황 >



자료 : 기술보증기금 벤처통계

- 벤처 확인 기업을 유형별로 보면 2009년 말 현재 기술평가보증기업이 전체의 83.5%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기술보증기금이 벤처기업 지원 기관으로 신규 발굴 실적이 증가한데 기인함

- 또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관련 벤처가 전체의 75.7%를 차지하고 있고 연구개발 서비스 업종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벤처 확인기업은 새로운 창업보다 기존 제조기업의 전환 형태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유형별 현황 (2009년 말) >

구분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예비벤처 기업	합계
업체 수(개)	555	1,899	15,783	581	75	18,893
비중(%)	2.9	10.1	83.5	3.1	0.4	100.0

< 업종별 현황 (2009년말) >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 광업	기타	합계
업체 수	14,303	2,526	206	303	309	47	1,199	18,893
비중(%)	75.7	13.4	1.1	1.6	1.6	0.2	6.3	100.0

자료 : 기술보증기금 벤처통계

- 벤처기업은 최근의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은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재무 상황과 경영 성과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2년간을 비교해 보면 벤처기업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자기자본 비율은 낮은 반면, 부채비율은 더 높게 나타남
  -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8년의 경우 19.3%로 중소기업보다는 높으나 대기업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08년의 경우 7.3%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주요 지표 비교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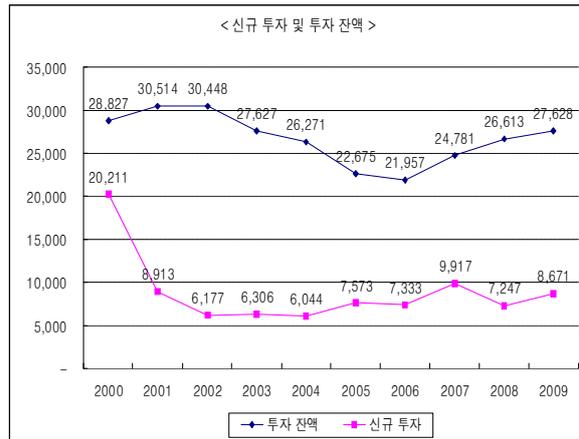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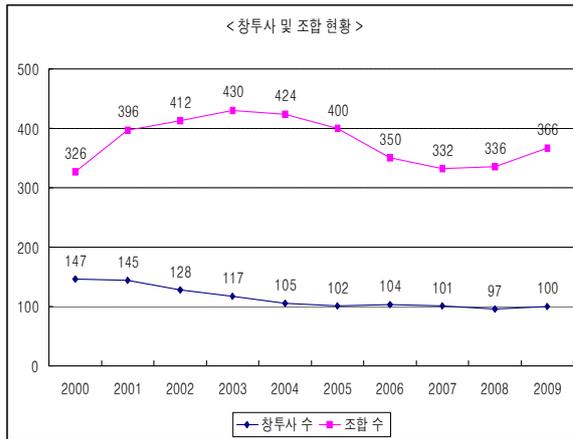
구분		대기업 (제조업)	중소기업 (제조업)	벤처기업	
				전체	제조업
자기자본 비율	2007	53.0	40.5	38.8	38.4
	2008	47.3	40.5	39.1	39.5
부채 비율	2007	88.8	147.0	157.9	160.1
	2008	111.5	147.0	154.9	154.4
매출액 증가율	2007	10.2	7.8	10.8	12.9
	2008	22.0	18.1	21.2	19.3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	2007	6.8	4.4	8.3	6.6
	2008	6.6	4.8	7.0	7.3

자료 : '200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벤처기업연구원

- 창투사와 조합 수는 벤처 버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증가세를 보임
  - 창투사와 조합의 신규 투자는 2000년 이후 급감하였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8,671억원이 신규로 투자됨

< 국내 벤처캐피탈 현황 >

(단위 : 개, 억원)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2009년 9월 현재 신규 결성 조합의 출자 비중은 정부가 40.5%로 가장 많음
  - 전체 조합에서 모태펀드 출자 조합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가의 출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연도별 결성 조합 출자자 구성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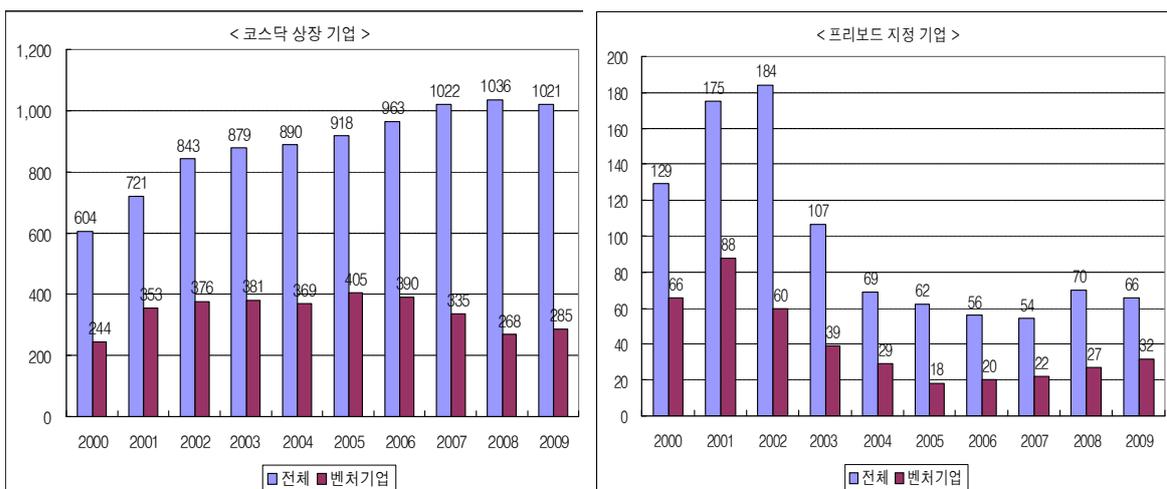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정부기금 (모태)	31.3 (0.0)	27.5 (10.0)	14.7 (10.9)	24.4 (11.1)	25.9 (18.8)	21.4 (17.0)	40.5 (34.5)
금융기관	15.8	30.1	23.7	17.1	19.2	12.2	12.4
연금공제회	29.3	7.3	28.3	7.2	15.8	6.8	3.9
창투사	13.4	11.6	10.8	10.7	17.4	10.0	14.6
일반 법인	7.4	12.0	16.2	18.6	14.0	34.1	23.5
기타 단체	0.0	0.1	0.0	0.3	0.0	0.1	1.6
개인	2.8	3.3	1.7	7.1	3.9	7.2	3.2
외국인	0.0	8.1	4.6	14.6	3.8	8.2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벤처업계의 한계점

- 벤처기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및 프리보드 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은 모두 합해도 전체의 1.7%(2009년 기준)에 불과함
  - 코스닥 시장의 전체 등록 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코스닥에 상장되는 벤처기업은 최근 수년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비중은 2001년에 50.3%를 차지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면서 2009년 말에는 27.9%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음
  
- 특히 벤처기업들의 정규 시장 진입을 위한 예비 시장인 프리보드 시장은 최근 수년간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벤처 버블 붕괴 이후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2년부터 지정 취소 규정을 강화하면서 프리보드 시장에서의 벤처 위축이 두드러짐
  - 프리보드 시장에 진입하여도 기업 홍보, 신인도 제고, 자금조달 등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유망기업은 기피하고 있음
  - 코스닥 시장과 비교해 보더라도 벤처기업의 제도화된 장외 시장인 프리보드 시장이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코스닥 및 프리보드 시장의 벤처기업 추이 >



자료 :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통계 자료 재구성

- 벤처기업 확인제도<sup>2)</sup>는 시행 후 몇 번의 개정을 통해 개편을 단행해왔으나 벤처 확인에 따른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한 벤처기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선별 기준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공공기관은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비해 벤처캐피탈은 성장 단계의 사업성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벤처 확인에 따른 효과 측면에서 보면 기업 이미지 제고, 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과는 크지만, 자금조달, 세제혜택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 확인제도 효과성 평가 >

(n=2,053)

	창업 활성화	기술개발 촉진	기업이미지 제고	영업 및 마케팅 지원	자금조달·투자유인	세제 혜택
긍정응답률 (Top 2%)	51.9	54.8	61.5	48.4	52.4	44.5
5점 평균	3.5	3.5	3.7	3.4	3.5	3.4

자료 : '200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벤처기업연구원

주 : 긍정응답률은 '효과가 있는 편이다' + '매우 효과가 있다'를 합한 응답 비율

- 벤처확인기업 중에서 녹색 벤처로 분류되는 기업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벤처기업에서 약 7.74%에 불과하여 녹색분야 벤처 저변은 취약한 실정임
  - 녹색 벤처로 분류된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가 제일 많은데, 이는 비교적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설치 제조업 분야임
  -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 등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벤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녹색기술 분야는 기술 표준화와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규제와 진입장벽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임

2)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에 의해 정부가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벤처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임. 벤처 확인 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이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의 기준이 되고 있음

< 녹색 관련 벤처기업 현황 >

구분	기업 수	비중 (%)
녹색 관련 벤처 기업 (B)	1,192	100.0
신재생 에너지	106	8.9
에너지 효율 향상	953	79.9
친환경	128	10.7
기타	5	0.4
2008년 벤처 확인 기업 (A)	15,401	(B/A) 7.74

자료 :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연구원

주 : 2008년 말 기준으로 벤처 확인된 기업들을 벤처기업연구원에서 분류

### 3. 벤처 활성화 과제

#### ○ 장기적 관점에서 우량 벤처의 체계적 발굴과 정책적 육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지원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성 제고를 지향해야 함
  - 벤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단기적인 자금 투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기적 과열을 예방해야 함
  - 첨단 녹색기술 분야 중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차별적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선점이 유망한 분야의 우량 벤처를 선별하고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녹색 벤처기업의 분야별, 기술 수준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초기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녹색기술 관련 벤처는 단기간의 정책 지원만으로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음
  - 녹색 벤처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분야별 기술 특성을 감안하여 성장 단계별로 투자 기한을 여유롭게 두고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벤처 창업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속

- 녹색 분야 기술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지속과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함
  - 벤처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 토양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기술력 배양을 위한 R&D 투자와 시장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범정부 차원의 녹색기술 개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 BT, NT를 활용한 융합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함
  
- 녹색 벤처를 견인할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에 힘써야 함
  - 녹색산업 분야의 미래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녹색기술에 관한 분야별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차세대 핵심 녹색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추진하고 해외의 우수한 녹색 인재의 유치에도 힘써야 함

○ 벤처업계 활성화와 녹색 벤처의 창업 유도를 위한 제도적 정비 추진

- 녹색 벤처 인증제도의 확립 등 조속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녹색기술 벤처기업에 대한 인증 기준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여 녹색 분야의 초기 지원을 강화하면서 중복 투자와 버블 우려를 해소해야 함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차별화되는 녹색 벤처 기업의 인증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장외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벤처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함
  -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서 시장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프리보드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장외 시장의 지정 요건 보완으로 벤처기업의 정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투자자의 시장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거래 비용의 경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의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

- 녹색 분야의 글로벌 규제 역량 배양을 추진해야 함

- 녹색 벤처 거품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경영 혁신을 강화하여 벤처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배양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녹색산업 분야는 글로벌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정보 네트워크 등 지원 체제 구축이 필요함

-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체제 구축과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

- 대기업은 벤처기업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접목하여 사업 기회 창출과 핵심 역량 확충의 계기로 활용해야 함
- 정부는 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상생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 및 신축적 운용 등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야 함 

허만율 연구위원 (myhur112@hri.co.kr, 2072-6236)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6	2007	2008 <sup>P</sup>	2009 <sup>P</sup>					2010 <sup>E</sup>		
				1/4	2/4	3/4	4/4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5.2	5.1	2.2	-4.2	-2.2	0.9	6.0	0.2	4.5	
	최종소비지출 (%)	5.1	5.1	1.6	-2.0	0.9	1.7	4.5	1.3	3.5	
	민간소비 (%)	4.7	5.1	0.9	-4.4	-0.8	0.8	5.6	0.2	3.3	
	총고정자본형성 (%)	3.4	4.2	-1.7	-8.1	-2.7	-0.8	6.4	-0.9	4.9	
	건설투자 (%)	0.5	1.4	-2.1	1.6	3.7	2.7	3.9	3.1	3.2	
	설비투자 (%)	8.2	9.3	-2.0	-23.5	-15.9	-7.4	12.9	-8.9	9.5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	54	59	-58	86	131	104	106	427	18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61	147	-133	30	164	100	111	404	265.2
		수출 (억 \$)	3,255	3,715	4,220	744	904	948	1,040	3,635	4,120.4
		증감률 (%)	(14.4)	(14.1)	(13.6)	(-25.2)	(-21.1)	(-17.6)	(11.7)	(-13.9)	(12.9)
		수입 (억 \$)	3,094	3,568	4,353	714	740	848	929	3,231	3,855.2
증감률 (%)	(18.4)	(15.3)	(22.0)	(-32.7)	(-35.6)	(-31.0)	(1.4)	(-25.8)	(19.7)		
소비자물가 상승률 (%)	2.2	2.5	4.7	3.9	2.8	2.0	2.4	2.8	3.1		
실업률 (%)	3.5	3.2	3.2	3.8	3.8	3.6	3.3	3.6	3.4		
국제유가(평균, Dubai, \$/배럴)	62	68	94	44	59	68	75	62	85		
원/달러 환율 (평균, 원)	956	929	1,103	1,415	1,289	1,241	1,168	1,276	1,11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